

PHONE 시나리오



송설화

목차

1 시나리오

1_1 [에밀리의 방_아침](#)

1_2 [에밀리의 방_저녁](#)

1_3 [1층 거실_낮](#)

1_4 [에밀리의 방_늦은 새벽](#)

1_5 [2층 거실_늦은 새벽](#)

1_6 [에밀리의 방_늦은 새벽](#)

1_7 [제임스의 방](#)

[Phone]시나리오

#Scene1 에밀리의 방

어느때와 다름없는 평화로운 하루 5월을 지나 햇빛이 강해지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6월이 되었다

에밀리가 양팔을 뻗으며 몸을 스트레칭 한다

에밀리_ 아~ 드디어 방학이네 (핸드폰을 켜다) 이번 방학만큼은 집에만 있어야지
(꿈틀거리며 이불에 파묻힌다) 역시 이불밖은 위험해

에밀리의 엄마가 에밀리의 방을 들어온다

엄마_ (누워있는 딸을 쳐다보며) 이번방학에는 자기개발 같은 건 안 하려는 거니..?

에밀리_ (시선은 핸드폰에 가 있으며) 엄마 나 이번 방학에는 아무것도 안하고 쉴래

엄마_ 알겠어 그래도 눈 나빠지니 핸드폰 사용은 적당히 해라 (문을 닫고 나간다)

에밀리_ (나가는 엄마의 눈치를 한번보고) 그동안 밀린 드라마 좀 봐 볼까?

에밀리는 하루를 대부분 핸드폰을 사용하고 시간을 보낸다 핸드폰을 자주사용한 탓인지 핸드폰이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버벅거리게된다

에밀리_ 아니 핸드폰이 왜 이리 느린 것 같지...? (핸드폰을 톡톡 친다)

엄마가 내년까지는 핸드폰 절대 안 바꿔 준다 했는데... 인터넷으로 찾아봐야겠다

에밀리는 핸드폰으로 '핸드폰 빨라지는 법'을 검색한다 수많은 사이트를 뒤적거리다 이상한 불법 사이트를 찾게 된다

에밀리_ (의아해하며) 이걸 다운받으면 핸드폰이 엄청나게 빨라진다고?

에밀리는 의심스러운 사이트에 들어가 처음보는 프로그램을 들어가 다운로드 버튼을 누른다 다운받는 속도가
길어지자 에밀리는 핸드폰을 두고 이불을 뒤집어쓴다

에밀리_ (의문을 가지며) 다 다운받으면 핸드폰이 빨라 지겠지...? 에라 모르겠다 잠이나 자자

#Scene2 에밀리의 방_저녁

갑자기 핸드폰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촉각 청각 시각을 느끼고 보며
인간과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된다

H6(속마음) _ 뭐지 나 지금 살아있는 건가...? 이게... 어떻게 된거지...? (혼란스러워 한다)
내 칩에 있는 데이터로는 난 살아있다는 게 불가능한 일인데..
그나저나 여긴 어디지...? (주변을 둘러본다)

H6이 움직이는 소리에 에밀리가 잠에 깬다

에밀리_ (핸드폰을 찾으면서) 으..몇 시지...? 눈이 떠지니까 잠이 안오네..
다 다운받아 켜나보네 그나저나 어제 어디까지 봤더라...? (드라마를 켜다)

에밀리는 옆에 있는 H6을 집어 드라마를 키기 시작한다 그리고 H6은 자신을 다루는 행동을 보고
여기서 움직이면 안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H6(속마음) _ (겉을 먹으며) 눈에 띄는 행동을 했다가 나를 어떻게 할지 몰라...

겉을 먹은 H6은 그냥 어느때와 다른없는 그냥 핸드폰처럼 가만히 있기로 마음먹는다

#Scene3 1층 거실_낮

H6은 가만히 상황을 지켜 본지 어느덧 일주일이 지났다 그리고 여전히 에밀리의 손에는 H6을 쥐고 있다

H6(속마음)_ (에밀리가 자신을 사용해도 죽은 듯 있다) 일주일동안 지켜본 결과
일단 주인놈은 나를 하루 종일 혹사 시킨다... 아침엔 게임 점심엔 쇼핑 저녁엔 드라마를 보다
잠에 드는 것 같다... 그리고 인간들은 주인놈을 에밀리 라고 부른다
그래도 주인놈의 주인은 나를 자주 사용하는 걸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던데

에밀리는 이 상황을 전혀 모르는지 H6의 화면을 보고 웃고 있다

H6(속마음)_ 일단 이 주인놈이 멍하게 날 쳐다보는거 부담스럽고 짜증나 제발 이 얼굴좀 치워 줬으면..
(기운이 빠진 목소리로) 점점 화면을 밝게 낼 기운도 없고 음량소리도 작아지는 것 같아
이러다 나는 평생 쉬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화면만 띄우다 죽게 될 거야
(무언가 결심한듯) 그래! 여길 떠나는 거야 나에겐 선택지가 없어 여긴 지옥이야

#Scene4 에밀리의 방_늦은 새벽

에밀리는 드라마를 보다가 서서히 눈이 풀리며 잠에 든다

H6(독백)_ (에밀리의 눈치를 보더니) 잠에 들었나...? 도망가려면 바로 지금이야

H6은 서서히 드라마의 볼륨과 화면 밝기를 줄이다가 드라마를 끈다 그리곤 눈치를 보면서
조용히 침대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곤 자신의 버튼을 눌러 손전등을 켜 주변을 살펴본다

H6(독백)_ 일단 위로 올라가서 어디로 나가야 하는지 파악하자

H6이 책상위로 올라가 나갈 위치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에밀리가 소리를 듣고 일어나게 된다

H6(독백)_ (깜짝 놀라며)헉...! 눈치채기 전에 얼른 안보이는 곳으로 숨어야겠다 (침대 밑으로 숨는다)

에밀리_ (눈을 비비며) 음...깜빡 잠이 들었네... 몇시지...? (핸드폰을 찾기 위해 이불을 더듬는다)

에밀리가 핸드폰을 찾기 시작하면서 핸드폰이 사라진 걸 알게 된다

에밀리_ (화가 난 목소리로) 뭐야!! 내 핸드폰 어디갔어

H6(독백)_ (겁을 먹으며) 잘못 했으면 걸렸을 뻔했어 너무 무서워..

잡히게 되면 나는 정말 끝장이야 (몸을 조용히 떼다)

에밀리가 방을 서성이면서 핸드폰을 찾기 시작한다

H6(독백)_ 여기도 확인할 거야 시선을 피해서 얼른 도망가자

에밀리가 안 보고 있을 때 방에 있는 가구들 뒤쪽으로 이동해 몸을 숨긴다

H6(독백)_ 문 앞까지 거의 다왔는데 어떻게 해야 몰래 나갈 수 있을까?? (주변을 살핀다)

H6은 두리번 거리다 옷장 뒤에 있는 플러그를 발견한다

H6(독백)_ 플러그를 뽑아서 전등을 끄면 전등 쪽으로 신경 쓰게 될 거야 (전등 플러그를 뽑는다)

H6이 전등 플러그를 뽑자 전등의 불이 나가게 된다

에밀리_ (전등 쪽으로 시선을 돌리면서) 아 짜증나 불은 왜 또 꺼지는 거야

H6(독백)_ 지금이다! (옷장에서부터 문쪽을 향해 달린다)

H6은 에밀리가 안보는 틈을 타 옷장에서부터 문쪽을 향해 달려 에밀리의 방 문밖으로 나간다

#Scene5 2층 거실_늦은 새벽

그렇게 H6은 방밖으로 나오게 되고 거실주변을 서성인다 에밀리의 방 안에서는 분노가 느껴지는 비명이 들린다

H6(독백)_ (공포에 떨며) 으..너무 무섭다 정말 괴물같아 인간이란 존재는 너무 무서워..

어떻게 나 하나 사라졌다고 저렇게 까지 소리를 지를 수 있는거야..?

일단 방밖으로 나오긴 했는데...이제 어디로 나가지...?

계단으로 내려가면 되는데 내려가서 사람이라도 마주치면 어쩌지...?

누군가 1층에서 2층 거실로 올라오는 발걸음 소리가 난다 소리를 들은 H6은 주변을 살피다 사람이 없는 근처에 방으로 들어간다

제임스_ (계단을 올라오며) 아 이 새벽에 시끄럽게 난리야 조용히 좀 해

제임스는 짜증난 목소리로 투덜거리지만 발걸음은 에밀리의 방으로 향해간다

#Scene6 에밀리의 방_늦은 새벽

제임스는 시끄럽게 소리지르는 에밀리의 방에 들어와 동생에 상황을 살핀다

제임스_ (한숨을 쉬며) 무슨 일인데 이 시간에 시끄럽게 하지마라

에밀리_ (분노와 슬픔이 가득찬 목소리로) 내 핸드폰이 사라졌어

내가 자는 사이에 엄마가 가져간 걸 거야

제임스_ 그럼 시끄럽게 하지 말고 잠이나 자 (동생방을 나가려 몸을 돌린다)

에밀리_ (제임스의 소매를 붙잡으며) 오빠 제발 엄마한테 내 핸드폰 좀 달라고 얘기해주면 안될까?

(불쌍한 표정을 짓는다) 요즘 내가 핸드폰을 하루 종일 해서 내 말은 절대 안 들어 줄거야..

제임스_ (한심해 하며) 그러니까 평소에 잘해 누가 주구장창 핸드폰만 하라 했냐

에밀리_ 그리고 전등도 고장 났어 짜증나 진짜 되는게 하나없어

제임스_ 전등불도 꺼진 김에 잠이나 자라 시끄럽게 소리 지르지 말고 (문을 열고 나간다)

에밀리는 제임스의 눈치를 한번 보더니 제임스가 나가는 걸 보고서야 투덜거린다

에밀리_ (혼자 중얼거리며) 도움도 안줄거 면서 왜 들어온 거야 짜증나게

에밀리는 괜히 애꿎은 인형만 발로 찬다

#Scene7 제임스의 방

H6(독백)_ 여긴 한번도 본적 없는 곳 같은데 여긴 뭐하는 곳이지..?

H6은 주변을 살피다 활짝 열려있는 큰 창문을 발견하며 갑자기 번뜩이는 생각을 하게 된다

H6(독백)_ 창문을 통해서 밖을 나가는 거야 일단 창문으로 올라가자

H6은 서둘러 인간이 오기전에 창문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 창문 아래를 내려다본다

까마득한 바닥을 보곤 다시 절망에 빠진다

H6(독백)_ (두려움에 떨며) 이렇게 높은 위치에서 떨어지면 내몸이 박살 나겠지..

그때 누군가 방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린다

H6(독백)_ (발을 동동 구르며) 하필 왜 지금 들어오는 거야 어찌지...

급한데로 얼른 아무 곳이나 들어가서 숨어야겠다 (가구사이 외진곳으로 숨는다)

제임스_ (한숨을 쉬며) 개념 없이 이 늦은 새벽에 소리나 지르고 말이야.. 얼른 잠이나 자야겠다...

제임스는 이불을 대충 집고 드러눕는다 그리고 머지않아 코고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H6은 잠든 제임스를 보고 안심했지만 코고는 소리 외에는 제임스의 방은 아주 고요했다

H6(독백)_ 그래도 눈치채지 못해서 다행이다...

H6의 얼굴 위쪽에 빨간불이 깜빡거리고 있다

H6(독백)_ (기운없는 목소리로) 아... 너무 배고프다...배고파서 나갈 힘도 없고..
이러다 전원 꺼지겠네...

H6은 조용한 발걸음으로 총총 걸으며 주변을 서성거리다 충전기의 연결선을 찾는다

H6(독백)_ 나가더라도 전기좀 먹고 나가야겠다

H6은 제임스의 눈치를 보며 조용히 충전기가 있는 곳까지 발걸음을 옮겼고 충전기의 연결선을 자신의 몸에 끼워 전기를 먹기 시작했다 화면위에 깜빡이던 빨간불은 어느새 초록불이 뜨기 시작했다

H6(독백)_ (기운이 찬 목소리) 이제좀 살거같다 얼른 나가서 그 지긋지긋한 인간소굴을 나가버리자

그렇게 폰은 우여곡절 끝에 제임스의 방을 나가 1층으로 내려가는데 성공한다